

고양시, 창업 그이상...기업집중도시 박차

고양특례시가 ‘기업이 머무는 도시’로 변화를 서두르고 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벤처육성촉진지구와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지정,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 굵직한 정책을 통해 산업 생태계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변화는 최근 수년간 고양시 전역과 산하 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된 기업 지원 정책의 결과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경제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 그 중심에서 기업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기관이 고양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다.

창업서 글로벌 진출까지...전면 지원

2011년 설립된 고양산업진흥원은 창업·성장·도약 등 기업의 단계별 여정을 고려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왔다. 단순히 입주 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품·기술 개발, 인증 획득, 마케팅, 판로 개척 등 스타트업이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집중한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은 수요 연계형 기술개발 컨소시엄을 통해 창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기술개발이 실제 시장 수요로 연결되도록 설계한 결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 사례는 토종기업 뉴엔AI다. 진흥원 입주 이후 R&D와 육성 프로그램



▲교육발전특구 취·창업 지원사업으로 ‘웨스트월드’ 업체를 방문한 고양시 청년들. (사진=고양시)

콘텐츠 분야에서는 제작지원에 힘입어 본사를 이전하고 투자유치에 성공한 기업이 나왔다. 또 EBS·넷플릭스 공동제작 콘텐츠 사례도 성과로 꼽힌다. 스마트모빌리티 분야는 단기간에 후속투자 유치와 기업 이전, CES 최고혁신상 수상이라는 가시적 결과를 냈다.

지난해 고양산업진흥원 안에 문을 연 고



▲고양시청. (사진=고양시)

코스닥 상장 등 단계별 맞춤지원 성과 이동환 이사장 “전략산업 생태계 강화”

을 거쳐 코스닥에 상장한 이 회사는 임직원 200여 명, 연매출 약 200억 원 규모의 빅데이터 전문기업으로 성장했다. VFX 전문기업 웨스트월드도 지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OTT 대작의 시각효과를 담당하고, 해외법인 설립까지 성공했다.

전략산업 집중 지원...성과로 이어져

진흥원은 ICT, 콘텐츠, 스마트모빌리티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ICT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컨트롤러 기업이 콘퍼런스 대상, 빅데이터 자동분석 시스템 개발 기업이 과기부 장관상을 받았고, 휴대용 기상관측장비는 기상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

양투자청은 ‘고양형 TIPS(민간투자 연계 기술창업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민간투자와 연계해 R&D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혜기업 다수가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등 성과가 현실화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혜기업 10곳 중 5곳이 총 74억 원의 민간 투자를 확보했다. 지식재산권 32건, MOU 8건, 수상 3건이 뒤따랐다. 창업 단계에서부터 투자 기반을 마련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구조가 자리 잡아가는 셈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주거 중심 도시에서 기업이 선택하는 도시로 변화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창업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전략적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상청 혁신 제품으로 지정된 ‘쿼터니언’ 휴대용 기상관측장비. (사진=고양시)

한동균 진흥원장도 “고양형 TIPS와 창업펀드를 통한 벤처자금 유치, 투자청 설립으로 산업 도시로서의 한계를 뛰어넘겠다”며 “우량기업 유치와 산업지도의 재편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인프라에서 경쟁력으로...남은 과제

고양시는 광역철도망 확충, 산업단지 조성, 제도적 인센티브 마련 등으로 기업유치 기반을 다져왔다. 하지만 단순한 인프라 제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이 정착할 수 있는 생태계, 전문 인

력의 유입, 연구개발의 집적화, 후속 자금의 지속적 공급 등이 맞물려야 한다는 것이다.

고양시가 장기적으로 베드타운 이미지를 벗어내려면 도시 체질 전환이 필요하다. 일산테크노밸리 완공, 벤처육성촉진지구와 지식융합단지 활성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굵직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정책 성과가 단기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산업생태계 재편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고양시는 ‘기업이 몰리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기업 천화 도시로의 변신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최정석 기자